

2019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2019년 8월 11일(주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주 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목 적

1.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하여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함
2.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실천을 통하여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함
3.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
4. 한반도 평화통일 및 지구촌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함

배 경

1. 광복절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2.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는 전 세계교회가 매년 8.15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세계교회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예배문을 사용해주기를 소망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위한 예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4.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5.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선언은 분단된 한민족에게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CCK는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면서 이 두 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2019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

인도자: 000

입례 세계교회 청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상징물을 들고 입장합니다.

- + 남측 성경: 공동번역.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 + 북측 성경: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번역하고, 북측교회가 실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 + 한 몸 십자가: 각기 다른 이름과 개성을 지닌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숲을 이룹니다. 한 몸 십자가는 서로 다른 이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 아래에서 조화와 평화, 일치를 이루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 + 제주의 모래와 백두산 돌: 남과 북의 모래와 돌을 한 곳에 담았습니다. 모래와 돌이 원래 하나이듯 분단의 아픔이 평화와 통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예배로의 초대 인도자
(일어섭니다)

인도자: 창조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온 세계의 경계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 돌봄 안에 두셨습니다.

회중: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창조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소서.

인도자: 성령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연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국경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 불을 붙이시어 우리를 믿음, 정의, 화해를 위한 열정으로 채우십니다.

회중: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

인도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사형을 선고하며 진리를 억누르려 했던 세상 권력에 저항함으로써 제자도의 대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니다. 주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였고 주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회 중: 주님, 우리가 당신의 진리와 평화의 빛을 비추도록 도와소서.

개회찬송 **오소서 오소서** **다함께**



1. 평화의 2. 정의의 3. 생명의

기 원 **인도자**

인도자: 하나님, 이제 우리 한민족이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걷고자 합니다. 남북교회에 힘을 주셔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정신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땅, 평화로 하나가 된 땅,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회 중: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앉습니다)

죄의 고백

인도자: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당신의 길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곤 합니다. 당신의 실재를 일그러뜨리는 이념들에 대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우상처럼 여겨 주님이 주신 화해의 명령보다 중시합니다. 이웃의 상처를 무시하며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만을 돌보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음을 걷지만, 금세 지치고 힘을 잃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길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

을 채워 주시고, 당신의 자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회 중: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주님, 자비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응답송 Jesus, remember me **다함께**

Je - sus, re - mem - ber me when you come in - to your king - dom.

5
Je - sus re - mem - ber me when you come in - to your king - dom.

Words: Luke 23:42
Music: Taize Community, 1998.

용서의 선언

인도자: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찬 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함께**

Lau - da - te om - nes gen - tes, lau - da - te Do - mi - num, Lau -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da - te om - nes gen - tes, lau - da - te Do - mi - num, Lau -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말 씬

오늘의 기도

성경봉독

〈구약성경〉

시편 34편 14절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공동번역)

특별찬양

설 교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감사와 응답

2019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말은이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맨 손으로 대한(조선)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36년 동안의 긴 사슬을 끊고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의 함성이 메아리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천년 동안이나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 속에는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우리의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광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세도 무너트릴 수 없는 강고한 평화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소서. 강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과 힘 모아 정진하면, 그 어떤 세력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자주 행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북에서 주고 북이 부족하면 남에서 주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북과 남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세계 경쟁구도에서 남북/북남이 서로 돕는 것만이 살 길이요 미래의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보느라 실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북남의 공존공영을 위해 과감히 실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조선) 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남북/북남의 민이 서로 웃으며 만나고, 외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북과 남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막아서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를 지나는 오늘의 이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지나는 길목마다 남과 북/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와 통일의 기운으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 기도문은 교회협과 조그런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봉헌찬송 I Give My Peace unto You 다함께



평 안 을 너 에 게 주 노 라 세 상
My - Peace I - give un - to you It's a



이 줄 - 수 없 - 는 세 상 이 알 수
Peace That the world can 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도 없 는 평 - 안 평 - 안
world can not understand - - Peace to know



평 - 안 평안 을 네 게 주 노 라
Peace to live My - Peace I give un-to you

봉헌기도

세상으로 나아감

(일어섭니다)

파송사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 이 평화를 숨긴 채 안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의 가깝고 먼 모든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하고 충돌하는 상황 속

에서 이 평화를 수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평화는 폭력의 모든 음모보다 더 강력합니다. 평화는 위험한 우상 숭배에 도전합니다. 평화는 갈등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연대하게 합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채워져 차고 넘쳐흐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회 중: 또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 께: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 옆의 자매와 형제와 함께 그 평화를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찬 송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다함께**

♩ = 76

A D F7 Bm B7 E E7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물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난의 세월

A A7 D Dm A/E E7 A

사람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 하늘이 환짝 열려나

D A B7 E7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우 ————— 우 ————— 우 ————— 우 —————

A A7 D Dm A/E E7 A

번씩 일곱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아 —————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